

嶺東地域 傳統農家の 空間特性에 관한 研究

- 田字집의 平面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Features of Traditional Farm Houses in Yongdong Area

- Focused on the Plan of 田-Shaped Houses -

최 장 순* 이 상 범** 최 찬 환***
Choi, Jangsoon Lee, Sangbeom Choi, Chanhwan

Abstract

The traditional farm houses in Yongdong area of Kangwon province have a different spatial structure from those of the other area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imatic, geographic and sociocultural circumstances between the Taebaek mountains and the East Sea.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at grasping how the spatial features of traditional farm houses in Yongdong area have been different in each regional circle.

The plans of traditional farm houses of this region which are four types - 一 typed house without floor, 二 typed house with floor, 三 typed house without floor, 四 typed house with floor - show very similar but different space arrangements.

키워드 : 田字집, 傳統農家, 空間特性, 嶺東地域

Keywords : 田-Shaped House, Traditional Farm House, Spatial Feature, Yongdong Area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영동지역은 해양성기후가 두드러져 같은 緯度 1:의 영서지역보다 약 2~4℃ 가량 높다. 또한 1년중 가장 추운 1월의 평균기온도 약 8℃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추운 영서지역에서는 주로 곁집형의 농가가, 이보다 따뜻한 영동지역에서는 홑집형의 농가가 주류를 이루어야 함에도 영서지역에서는 홑집형의 농가가, 영

동지역에서는 곁집형의 田字집 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¹⁾, 이들 田字집이 지역에 따라 주거공간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田字집이 이 지역 농가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지역간 평면 유형상의 차이와 실 이용상의 차이가 두드러져 흥미로운 분포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동지역 농가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田字집의 형성과정과 이에 따른 田字

1) 유승용·박경립, 강원도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4. 4, 39쪽에서 영서지역에서 채록한 47동 중 80.9%인 38동이 홑집형이고, 영동지역에서 채록한 39동 중 76.8%인 30동이 곁집으로 조사되었다고 함.

* 정희원, 동해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공학박사

집의 공간명칭과 이용행태, 주거 내에서의 각 공간의 위치를 살펴보고,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에 있어서, 대상지역은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영동지방이다. 북 한계는 강원도 고성이며, 남 한계는 삼척이다. 대상주택은 축조원 이후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비교적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田字집 농가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田字집 농가에 대한 실측, 촬영, 관찰, 면담을 통해 주택의 물리적 현황-주로 배치와 평면-을 파악하여 당초의 배치와 평면의 원형을 찾고, 공간사용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작업을 통하여 영동지역 田字집 농가의 주거공간에 대해 상호 비교 분석한 후에 결론을 제시코자 하였다.

2. 영동지역 전통농가의 공간구조

2.1 전통농가의 형성과정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문화권이 인접하는 지역에서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두 문화의 성질을 혼합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이라는 큰 준령이 문화의 교류에 큰 영향을 주어 경상도와 함경도 지역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던 지리적 조건과 겨울이 길고 한랭한 이 지역의 기후적 조건, 인근이 산악이라는 환경적 조건으로 외부로는 폐쇄적이고, 내부로는 개방적이며, 비교적 경제적인 공간 분배 조건을 갖춘 겹집형 田字집이 가장 대응적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²⁾.

2) 이와 같은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세한 연구로는 유승용·박경립, 강원도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4. 4를 들 수 있다.

또한 함경도의 겹집형 田字집과 경상도의 마루 있는 홑집형 一자집 주거와 맞닿는 지역으로 문화의 접촉 변용에 의한 변화가 예상될 수 있고, 기후조건도 중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들 요소가 혼합되어 영동지역 특유의 절충적인 田字집이 발생하게 되었다³⁾.

즉 함경도 지방의 겹집형 田字집이 남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지역마다 조금씩 형태변화를 하여 오면서 남부지방의 마루 있는 홑집형 一자집과 결합하여 변형된 것으로 영동지방 특유의 기후적·환경적·사회문화적 조건 아래 거주자

표 1. 평면유형 및 분포지역

구분	평면유형	가구	분포지역
안마루있는 一字形 田字집		8	삼척 주지리(3) 평대곡(3) 대평리(1) 오지리(1) 가둔지(1)
안마루없는 一字形 田字집		20	삼척 맹방리(5) 짐리(6) 주지리(4) 발리(2) 상천리(3)
안마루있는 ㄱ字形 田字집		20	속초 장천면(3) 도문리(2) 고성 오봉리(10) 구성리(2) 해상리(3)
안마루없는 ㄱ字形 田字집		37	강릉 남양리(12) 연곡면(5) 물해 양상동(20)

R1:안방, R2:옷방, R3:뒷방, R4:사랑방, R5:아랫사랑, R6:옷사랑, R7:앞사랑, R8:뒷사랑, R9:도장, F:안마루, K1:경자, K2:사랑정자, B:방당, Rk:정기방, S1:코방, S2:옷간, S3:방, S4:소타력, C:마구, T:숙간
* 설명은 가급적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을 씀.

3) 이와 같은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세한 연구로는 조성기·지호경,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I·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6.10, 1987. 2와 임성규, 영동지방 민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 3을 들 수 있다.

의 선택에 의해 田자집 주거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이것을 통해 보면, 안방과 사랑방의 위치와 마구의 돌출 여부, 안마루의 유무, 정지공간에서의 봉당의 유무 등을 영동지역 田자집의 유형분류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표 1]의 4개 평면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 분포지역

'안마루 없는 一자형 田자집'과 '안마루 있는 一자형 田자집'은 주로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동남부지역(이하 '삼척권'이라 한다)에, '안마루 없는 ㄱ자형 田자집'은 강릉, 동해, 주문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동중부지역(이하 '강릉권')에, '안마루 있는 ㄱ자형 田자집'은 속초, 고성을 중심으로 한 영동북부지역(이하 '속초권')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2.3 공간명칭과 이용형태

영동지역 농가에서 나타나는 田자집 주거공간의 주요 명칭과 그 이용형태, 그리고 주거 내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방과 사랑방

안방은 주거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서 취침 공간인 동시에 가족의 식사, 단란, 겨울철 실내 작업, 육아, 안손님 접객 공간으로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정지에 접하여 아궁이가 있어 항상 따뜻한 주거공간으로 노부모가 기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노부모가 경제권을 자식에게 물려주었거나 손자를 볼 경우 어린 손자를 위하여 아들내외에게 안방을 내주고 옷방 또는 사랑방으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

사랑방은 안방과 상대되는 공간으로서 취침, 바깥손님 맞이, 학습 등 주로 사회적 생활공간의 용도로 쓰이는 곳으로 바깥주인이 기거하면서 외래인을 맞아 접대하거나 단란을 즐기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속초권과 삼척권에서 안방은 후면에, 사랑방은 전면에 배치되고, 강릉권에서는 안방과 사랑방이 전면에 나란히 배치된다. 속초권과 강릉권에서는 사랑방의 뜰 아래에 붙어궁이가 있어 따로 난방을 하고 있으나 삼척권에서는 별도의 붙어궁이가 없어 정지의 붙어궁이로 사랑방의 난방을 한다.

2) 안마루와 쪽마루

마루는 위치에 따라 내부에 있는 안마루와 외부에 있는 쪽마루로 구분된다.

안마루는 주로 안방과 사랑방을 연결해주는 통로로 이용되지만 가족의 만남, 휴식, 여름철 식사와 취침, 손님의 접대 등에 이용되는 생활 공간이며, 간단한 물건의 수장, 단기간의 곡식저장, 가족공동작업 공간으로 사용되며, 안방과 사랑방과의 거리를 두어 상호의 기밀성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양쪽 공간을 상호 연결해주거나 외부와 연결해주는 중간공간내지 완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쪽마루는 주로 처마 밑에 설치되는데 겨울철 폭설이 내릴 경우 젖어지는 안되는 물건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마당에서 방으로의 출입을 편리하게 연결시키는, 또한 외부에서 방과 방을 상호 연결시키는 매개장소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한다⁴⁾. 즉 쪽마루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또한 외부에서 내부공간과 내부공간 상호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매개공간이다.

속초권과 삼척권에서는 안마루가 있으나, 강릉권에서는 없으며, 쪽마루도 삼척권에서 주로

4) 외부에 접해 있는 마루는 뒷마루, 동마루, 뜰마루, 쪽마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마루는 뜰(드락)위에 설치되는 쪽마루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구분 없이 쪽마루로 표기함.

5) 김원규씨(삼척 주지리)에 의하면, 처마가 길지 않아서 폭설이 내릴 경우 뜰 높이 이상으로 눈이 쌓이므로 안마루나 쪽마루에다 신발, 요강 등을 둔다고 함.

채집되고 있으며, 강릉권과 속초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배계공간으로서 쪽마루의 폭도 2척 정도로 매우 좁다.

3) 정지와 봉당

정지는 집안에서 큰 일을 치를 때 각종 식품을 저장하는 공간이자 빨감 등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주부의 작업공간이나 식사공간까지 포함하는 말로 쓰이는데, 주택 내에서 다른 실들에 비해 면적이 가장 넓다. 지역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여 단순히 밥짓는 공간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봉당과 통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봉당은 원래 정지와 트인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지와 같은 높이의 흙바닥이지만 일부 田자집에서는 흙바닥을 높여 土床⁶⁾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어떤 특정 기능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실내작업공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봉당은 田자집에서 인접한 마당의 일부 작업공간이 실내에 편입된 것과 같은 내부작업공간이라 생각된다.

속초권과 삼척권에서 봉당이 있으나, 강릉권에서는 봉당이 없다. 또한 삼척권에서는 정지와 접한 마구와 안마루 사이의 널흙바닥 공간을 봉당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속초권에서는 안마루 대신 土床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를 봉당이라고 부르고 있어 주택 내에서의 위치와 바닥 높이를 지역간 서로 달리하고 있다. 정지의 위치도 삼척권에서는 안방과 고방 사이에, 속초권에서는 단부에, 강릉권에서는 안방과 곳간(광 또는 정지방) 사이에, 또는 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속초권에서는 사랑방 옆에 별도의 사랑정지가 있다.

4) 도장과 고방

도장은 '도장방'이라고도 하며, 쓰이는 용도에 따라 '웃방' 또는 '뒤편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거와 곡식을 저장한다던가 또는 실림에 쓰이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겸용된다. 도장은 붙아궁이의 불기운이 전달되는 은밀한 장소여서 부인들의 解産 장소로도 많이 사용되었다⁷⁾.

속초권과 강릉권에서 고방은 고방이라는 명칭보다 '골방'으로 더 많이 불리어지며 주택 내에서 후면에 설치되는 방으로서 살림살이들과 곡식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이자 옷을 갈아입는 갱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뒤편방의 한 쪽에 있어 기거와 수납 겸용의 토벽 구들로 되어 있다. 삼척권에서 고방은 각종 단지와 식기, 조리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饌房의 기능을 갖는 室로 정지 옆에 마구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벽은 松板으로 된 민지벽⁸⁾이고, 바닥과 천장은 통기를 위해 송판 마루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도장은 안방에 근접되어 안방과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거와 수납 겸용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강릉권 이북지역에서의 고방 즉 골방은 수납과 기거 겸용의 방이지만 수납기능에 더 가까운 방이며, 삼척권에서 고방은 기능상 정지 옆에 붙어 곡식을 넣어두는 단지나 정지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수납 목적의 실이라고 할 수 있다.

5) 마구와 측간

소를 키우는 牛舍를 흔히 馬廐라고 부르는데, 소는 농사일에 사용되는 중요한 생산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식량원이기도 하고, 변식을 통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삼척권에서는 마구를 정지 옆에 나란히 붙여 지어 정지 안에서 소와 동거하는 형식을 취하는

6) 문 논문에서는 정지 바닥보다 30~40cm 정도 높은 흙바닥을 의미함.

7) 김홍식, 한국의 민가 II, 한길사, 1992, 4, 82쪽의 "도장 밑이 안방 밑고, 사랑 밑이 마당 밑인 아주 나간다"는 말처럼 도장은 해산 장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8) 널판벽(또는 널벽)으로 나무 관자를 세로로 세워 만든 벽을 말한다. 삼척권에서는 널판을 주로 상방과 중방 그리고 하방 사이의 벽 전체에 끼우고, 속초권에서는 중방과 하방 사이에 널판을 끼우며, 강릉권에서는 흔재되어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경우가 대부분이나 드물게 부속체에 마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마구는 집안에 큰 일이 있을 경우 소를 바깥에 배어 두고 마구를 청소한 다음 이곳에서 허드렛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였다⁹⁾. 마구의 벽은 소뿔이나 충격에 약한 토벽보다는 빈지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악취를 내보내는 통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강릉권과 속초권에서는 마구가 정지 앞에 돌출 되어 구유통이 정지에 면해 있거나 마당 쪽에 설치되기도 한다. 삼척권에서는 구유통이 정지에 면해 있다.

廁間은 본채와 분리되어 강릉권에서는 外廁과 內廁으로 구분되어, 외측은 앞마당 한 쪽에, 내측은 정지 쪽의 뒷마당 또는 마구의 현쪽 벽에 주로 설치되어 남녀간 측간 사용에 대한 공간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삼척권과 속초권에서는 內·外廁 구분 없이 하나만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삼척권의 산간지역에서는 정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마구 바로 옆에 문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치적으로 마구에서 나오는 牛糞과 측간에서 나오는 人糞을 함께 뒤섞어 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利點과 산간지역으로 갈수록 폭설이 내릴 때 측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편을 없애고 밤에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착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삼척권과 속초권의 해안지역에서는 측간을 마당 한 쪽에 내외 구분 없이 본채와 떨어져 설치한 경우가 많다.

3. 영동지역 전통농가의 사례분석

3.1 안마루 있는 一지형 田자집

물이 흔한 산간이나 중산간지역이어서 산기슭에 집터를 자리잡은 경우가 많으므로 마당앞에는 주로 식숙을 쌓거나 들담을 쌓아 집안밖의 경계를 구분하고 대체로 대문을 닫지 않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이들 담은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오르내리기도 하고, 곡선으로 휘감아 돌기도 한다.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사람 눈높이보다 낮게 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당은 곡식건조 및 탈곡, 타작 등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마당 한켠은 소나 염소 등 가축을 매어 두는 공간으로서, 두엄이나 퇴비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농기구를 보관하는 수장공간으로서, 잔치나 초상 등 큰일을 치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뒤편은 여성들만의 공간으로 산의 경사면에 바로 면해 있어 좁으므로 식숙을 쌓아 쟁지를 만들고 이곳에 한테정지나 장독대를 일반적으로 설치한다.

평면형태는 6칸이 기본이고, 8칸이 일반적이다. 6칸일 때는 전면에 봉당, 안마루, 사랑방이, 후면에는 정지, 안방, 옷방이 배치되고, 8칸일 때는 봉당과 정지 옆에 마구와 고방이 추가로 배치된다.

봉당을 출입공간으로 하여 폐쇄적인 안마루에서 안방 영역과 사랑방 영역이 연결된다. 안마루는 장마루널로 되어 있고, 바닥으로부터 70cm 정도 떨어져 통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봉당과 안마루 사이에는 벽이 없고, 목재 디딤판을 두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에서 볼 때 안마루는 빈지벽과 닐문으로 폐쇄되어 있어 닐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체광이 다소 나쁘다. 대부분 안마루를 통하여 사랑방과 안방을 드나들어도 전·후면에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안방은 아궁이와 굴뚝이 직선거리로 되어 기류의 흐름이 원활하여 따뜻하나, 사랑방은 안마루로 인해 기류가 돌아나가게 되어 있어 안방보다는 난방효과가 다소 떨어진다.

수납공간으로 고방이 있는데, 정지 바닥으로부터 70cm 정도의 높이에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는 펄감 등을 쌓아 두어 정지에서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외에도 고미반자와 고방의 송판 천장 위에도 집안에서 쓰는 각종 도구들을 보관하는 다락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으며, 특히 마구 위에는 농작

9)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박병규씨의 말을 채록.

지 등 소여물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소다락을 설치하여 수장공간으로 요긴하게 쓰고 있다.

안마루, 봉당, 정지, 마구, 고방, 측간은 빈지 벽으로 되어 있고, 고방을 제외한 다른 실들은 천정도 없는 것으로 보아 통기성을 고려한 것으로, 방의 벽과 천정은 토벽과 고미반자로 되어 단열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방과 사랑방은 한 칸 내지 한 칸 반의 안마루로 격리되어 있다. 또한 남성공간인 사랑방은 외부에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공간인 안방은 비교적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유형의 田자집은 주로 삼척권의 산간지역과 중산간지역에서 주로 채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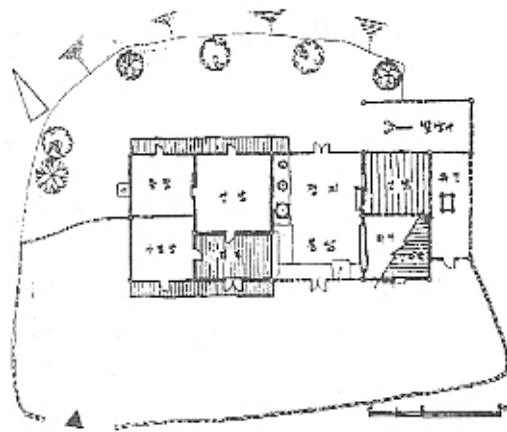


그림 1. 안마루 있는 一자형 田자집 (삼척 주지리 노신너가)

3.2 안마루 없는 一자형 田자집

산간지역은 돌이나 싸리나무로 만든 들담이나 싸리나무 울을, 해안지역은 주로 사철나무의 생울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마당은 농작업을 비롯한 여러 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뒤안은 뒤쪽 토산과의 사이에 대나무를 심어 울을 형성한 경우가 많으며, 이곳에 일반적으로 솔을 한 두 개 걸어 놓은 한테정지와 장독대를 설치하고, 반드시 정지를 통해서 출입

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마당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정지쪽의 뒤안과 연결된 작은 마당을 '아랫편'이라고 하며, 사랑방쪽의 작은 마당을 '윗편'이라고 이 지역에서는 부르고 있다.

이런 유형의 田자집은 마구가 정지 안에 접해 있는 경우와 마구가 별채로 독립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마구가 정지 안에 있을 경우는 산간지역에서 채집되고 있는데, 전면에 마구, 봉당, 아랫사랑, 윗사랑 순으로, 후면에 고방, 정지, 안방, 뒷방 순으로 배치된다. 마구가 별채로 독립되어 있을 경우는 해안지역에서 채집되고 있는데, 전면에 정지방 또는 광, 봉당, 안방, 앞사랑 순으로, 후면에 광 또는 곳간, 정지, 뒷방, 뒷사랑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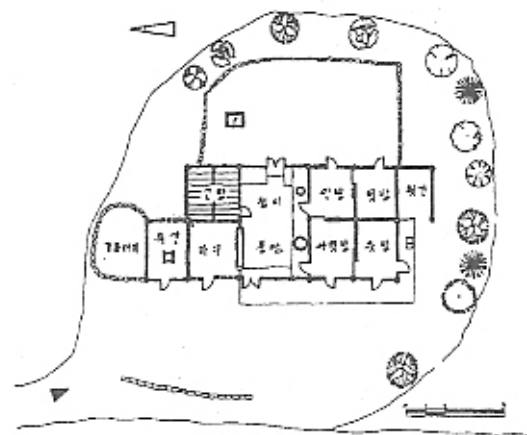


그림 2. 안마루 없는 一자형 田자집 (삼척 상천리 정금옥家)

부뚜막이 一자로 길게 되어 있어 봉당의 가마솔과 마구와의 동선은 안마루 있는 一자형 田자집보다는 원활하며, 난방조건도 아궁이와 굴뚝이 직선거리로 되어 안마루 있는 一자형 田자집보다 다소 유리하다. 마구 위에는 소다락이 설치되어 있다. 봉당, 정지, 마구, 고방, 측간이 빈지벽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의 합각부분에는 정지의 排煙과 換氣를 위해 까치구멍¹⁰⁾이 있다.

분포지역은 삼척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역과 중산간지역, 해안지역에서 채집되는데 해안지역의 田자집은 마구가 정지 내에 있지 않고 부속체로 독립되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경북 영덕, 울진 지역의 田자집과 유사한 배치¹⁰⁾를 하고 있다.

3.3 안마루 있는 기자형 田자집

마당 전편은 석축을 쌓아 뒤안에서 절토한 흙을 메워 마당을 형성하여, 이웃간의 대지 경계를 이루도록 하고, 마을의 안길에서 들어오는 출입구와 이웃집과 서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다. 뒤안의 토산을 절토하여 석축을 쌓아 땃지를 만들고 이곳에 장독대를 설치하였다. 본체 뒤쪽의 끝벽에서 다른 쪽으로 울이나 담을 높게 둘러치거나 대나무를 심어 그 자체로 울이 되게 하였다. 토산과의 경계에는 대나무를 심어 울이 형성되도록 하여 외부로부터 직접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대나무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계를 차단하고 태양 복사열을 감소시켜 그늘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의기에 변한 정지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면에 안마루와 아랫사랑, 옷사랑이, 후면에는 안방과 뒷방, 도장방이 놓여 田자 형태이다. 그러나 안마루가 2칸이 될 경우 전면에는 안마루와 앞사랑이, 후면에 안방, 뒷방 또는 도장, 뒷사랑 순으로 배치된다.

안마루는 축조 당시에 土床 즉 봉당이었던 것을 안마루로 개량한 집도 있으며¹¹⁾, 또는 축

조 당시부터 안마루로 만들어 밑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위에서 열고 닫게끔 여닫이식으로 되어 있었다¹³⁾고 하나 현재는 고정되어 있다. 정지 쪽에서 안마루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2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일부 주택에서 봉당이 안마루로 변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세한 살림집에서 안마루를 설치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므로 봉당을 임시적인 흙바닥으로 만들거나 그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따라 안마루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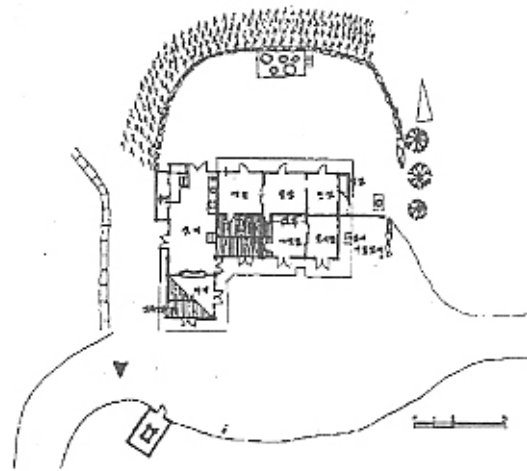


그림 3. 안마루 있는 기자형 田자집 (고성 해상리 박병규家)

이 지역의 봉당은 함경도형의 정주간처럼 분야궁이는 없지만 정지 바닥보다 높고 부뚜막과 높이가 같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기능을 갖는다¹⁴⁾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안마루도 정지를 비롯한 다른 방들과 실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

10)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므로 생충이나 이영으로 막아둔다(간성읍 해상리 박동옥家).

11) 강영환, 삼척이남 동해안지역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 1989, 103쪽과 148쪽의 그림 참조.

12) 백홍기, 명동지방의 고민가 조사, 강릉교육대학논문집, 1976, 228쪽에서古老들의 말을 빌어 이 지역의 민가가 봉당에서 안마루로 개조된 것은 일제 중기 이후의 일이라고 기술한 것을 보이셔도 알 수 있으며, 현존 주택 중에서 아직도 토상으로 된 바닥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집(간성읍 해상리 박순용家)이 있다.

13)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의 최대희씨에 의하면 안마루 밑에 집안에서 쓰는 각종 생활도구들을 보관하였다고 함.

14) 조성기·지호경, 알력, 22쪽에서 함경도형의 정주간이 소멸됨에 따라 옥내작업 및 가사작업 공간의 협소함은 큰 불원이었을 것이므로 안마루와 같은 다목적의 공간의 출현은 기후적인 여건까지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함.

는 통로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서 역할과 가족의 거실·식사·휴식·작업등으로 이용되는 다목적 공간으로 쓰인다.

정지와 안마루 사이는 개방되어 있는 대신 안마루의 전면은 다른 방의 외벽과 같이 桴로 묶이 만든 土壁으로 구획되어 一자형의 안마루 있는 田자집의 빈지벽과는 다른 구조를 하고 있으며, 안마루의 천장은 고미반자로 만들어 그 위에 더러 고미다락을 틀여서 수장공간으로 활용하는 집도 있다. 안마루와 사랑방에는 외부로 통하는 개구부가 있으나 이것은 출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광과 통풍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겨울철 출입은 주로 외부에 나있는 피살문보다는 정지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뜰 위에는 방으로 용이하게 드나들게 하는 섬돌이 없고 분지방도 높아 출입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주자들은 정지문을 통하여 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철 찬바람이 바깥 출입구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마구는 정지와 직접 접하여 배치함으로써 동선의 단축을 도모하고, 마구의 벽도 상부는 土壁으로, 하부는 빈지벽으로 만들었다.

특이한 것은 눈비에 젖지 않도록 외쪽지방을 사랑방 측면과 토담 사이에 있어 사랑방의 구들을 데울 수 있게 불아궁이가 설치된 사랑정지를 들 수 있다.

분포지역은 속초를 중심으로한 고성, 간성지역에서 주로 채집되고 있다.

3.4 안마루 없는 一자형 田자집

외부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싸리나무나 들, 흙을 재료로 하여 울이나 담을 만들며, 대체로 대문을 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문을 설치할 경우 구하기 쉬운 싸리나무나 대나무로 만든다. 대문의 위치는 마당 중앙에 배치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시설하는 경우가 흔하다. 집이 좀 크고 마당이 넓고 여유가 있는 경우 대문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남자용

출입구는 外厠과 더불어 사랑방이 가까운 곳에, 여자용 출구는 안방과 정지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뒤안은 생솔가지나 싸리나무로 엮은 울을 설치하거나 대나무를 심어 그 자체가 울을 형성하도록 한 경우가 많고 뒤안은 정지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이곳에 장독대를 설치하였다.

정지쪽의 작은 마당을 '정지밭'이라고 칭하며 이곳에서 일반적으로 빨래를 하거나 큰일을 치를 때 안반(떡판)이나 한데정지를 설치하는 곳으로, 정지에서 쓸 나무를 패서 장작을 쌓아두는 곳으로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이곳에 內厠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마당과 연결된 사랑방쪽의 좌측 작은 마당을 '사랑밭'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일반적으로 마당과 연결되어 마당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랑밭의 구석에는 거름으로 쓰기 위해 오줌을 받아두는 단지가 묻혀 있거나 귀땀둥이를 놓아두었다. 또한 이곳은 사랑방에서 땀 장작을 쌓아 두기도 한다.

이런 유형은 안마루 없는 一자형 田자집에 마구가 돌출 되어 있는 것으로, 6칸일 때에는 마당 전면에 정지와 안방, 사랑방의 순으로 배치되어 사랑방이 정지와 격리되고, 후면에도 정지와 뒷방, 도장방의 순으로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8칸이 되면,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 중방('가운데 방', '셋방', '사이방'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셋사랑'으로 칭하기도 함)이 배치되고, 후면에는 뒷방, 도장 또는 물방, 뒷사랑방의 순으로 배치된다. 10칸이 되면, 정지 쪽에 정지방 또는 곳간 또는 광이 위치하게 된다. 뒤쪽에 면한 방들은 충분한 일조, 일사를 이루지 못하는 결점이 있어 이 곳에 곡식과 물건을 저장 보관하기도 한다. 쪽마루가 있을 경우, 사랑방과 안방이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벽으로 구획되어 쪽마루를 이용해 사랑방과 안방을 드나들게 되어 있지만, 이런 쪽마루가 없을 경우 뒷방과 뒷사랑방을 제외하고는 주벽 내부에서 서로 통할 수 있도록 각 방의 사이 벽에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돌출된 마구는 구유통이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정지에 면해 있는 것과 마당에 면해 있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정지에 면한 경우는 정지와 마구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 마당에 면한 경우는 뒤쪽의 측간, 방앗간 등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을 경우라든지 또는 정지와 마구 사이에 곳간이나 헛간이 있을 경우에 나타난다. 마구의 바닥은 정지보다 낮게 하여 배수로를 만들고 소오줌통을 붙여 두어 소오줌이 고이면 바가지로 퍼서 기름더미에 뿌렸다. 마구의 지붕이 외쪽지방일 경우 전년 서까래 물매를 그대로 따라 내려오므로 지붕이 낮아 마구 상부에 소다락이 없으나, 본채와 같은 합각지방일 경우 마구 상부에 소다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쪽마루가 방의 전면이나 측면에 붙기도 하나 없는 집이 많다. 또한 광이나 마구, 사랑채 등이 별채로 지어지지 않고 본채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분포지역은 강릉을 중심으로한 방산, 옥계, 주문진 지역에서 주로 채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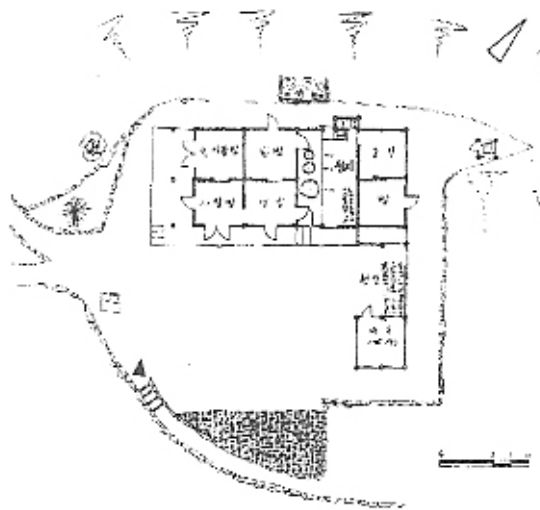


그림 4. 안마루 없는 ㄱ자형 田자집 (강릉 남양리 강순녀家)

4. 결 론

영동지역의 전통농가는 형성과정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거문화권으로 인해 지역간 차이를 보임으로써 네 개의 전형적인 주거유형 즉 '안마루 있는 一자형 田자집'과 '안마루 없는 一자형 田자집', '안마루 없는 ㄱ자형 田자집', '안마루 있는 ㄱ자형 田자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이점을 분류하면, 첫째는, 삼척권과 속초권에서는 안마루가 있으나, 중간지역인 강릉권에서는 안마루가 거의 없다. 둘째는, 마구의 돌출 여부로 삼척권에서는 마구가 거의 돌출 되지 않고, 강릉권인 동해이북 지역에서는 마구가 거의 돌출 되어 있다. 셋째는,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의 지역간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삼척권과 속초권에서는 안마루가 있는 관계로 남성공간인 사랑방이 전면에, 여성공간인 안방이 후면에 배치되는데 비하여 강릉권에서는 안마루가 없는 관계로 남성공간인 사랑방과 여성공간인 안방이 전면에 나란히 배치된다.

그 외에 빈지역의 면적이 영동 북쪽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根로 엮어 받는 上壁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점과 삼척권에서 안마루 상부는 천정이 없는 구조인데 반하여 속초권에서 안마루 상부는 천장이 있는 고미받자로 되어 있다는 점, 삼척권에는 수납목적의 고방이라는 공간이 명확하지만, 강릉권 이북지역에서는 수납목적 외에도 기기를 걸한 용도의 방들이 도장 또는 골방, 징지방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난다는 점, 중간지역에 위치한 강릉권에서는 삼척권이나 속초권과 달리 봉당이나 안마루 구조가 거의 없다는 점, 삼척권에서는 맨흙바닥에 정지와 동일 높이고 마당과 바로 연결되는 공간을 봉당이라고 칭하는데 반하여 속초권에서는 안마루가 위치할 자리에 안마루없이 정지바닥보다 높게 土床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봉당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 삼척권에서는 정지 좌측의 작은 마당을 아랫편, 사랑방 우측의 작은 마당을 웃편이라고 부르는데 강릉권에서는 이 곳을 각각 사랑밖,

정지밖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 영동지역 전통농가인 田자집의 각 권역별 부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영동지역 전통농가의 권역별 비교

구분	삼척권	강릉권	속초권
주거유형	안마루있는 -사설 田자집 안마루없는 -사설 田자집	안마루없는 기차형 田자집	안마루있는 기차형 田자집
안마루	산간 : 유 해안 : 무	무	유
마구틀출	무	유	유
봉당	유	무	유
남성영역	전면	전면	전면
여성영역	산간 : 후면 해안 : 전면	전면	후면
면지역	안마루, 봉당, 집지, 마구, 고방의 상방과 중방 그리고 하방 사이	마구와 집지 일부 설치, 양 지역의 공간적 특성	마구의 중방과 하방 사이
안마루 상부	노출	-	고미반사
사랑설지, 고미다락 (안마루 상부)	무	무	유

9. 조성기·지호경,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 (I·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6.10, 1987. 2
10. 최장순·최찬환, 강원영동지역 민가의 주거공간 변화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8
11. 최장순·최찬환, 강원영동지역 전자집의 주거공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4

참고문헌

1. 강영환, 삼척이남 동해안지역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문, 1989
2.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4
3. 고성군, 고성 왕곡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 보고서, 1989
4. 김홍식, 한국의 민가 제 1, 2권, 한길사, 1992
5. 백홍기, 영동지방의 고민가 조사, 강릉교육대학 논문집, 1976
6. 유승용·박경립, 강원도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4. 4
7. 임상규, 영동지방 민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 3
8. 조성기, 태백산간지역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1